

2003년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청은 2003년 전자공업협동조합이 주관·파견하는 '두바이 국제보안장비 전시회' 등 총 98회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에 52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전시회는 총 73회 파견할 계획이며 IT·BT 등과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1회) 및 기계류(21회) 등을 주력 수출하고 과거 한국관의 초라함으로 인한 국가이미지훼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당 지원금액을 지난해 평균 350만원에서 53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시장개척단은 총 25회 파견할 계획으로 중동·아프리카(7회), 동유럽(2회), 구주(5회) 등 미개척 틈새시장에 집중 파견하는 한편, 무역수지 적자폭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무역적자국인 일본에도 두차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류(11회), 전기·전자(7회)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공계 활성화 위해 산업발전장학금 100억 조성

매년 1천명 우수 청소년 선발 지원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발전장학금'이 조성된다. 민관 공동으로 마련되는 이 장학금은 올해 1월 대상자 선발 공고를 한 후 상반기 중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내년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업종 단체장들은 산업기술센터 개관식을 맞아 '산업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민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산업발전장학금은 업종별 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매년 100억원의 재원을 조성,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학금은 매년 고교생 1,000명, 주력산업관련 학과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00명을 선발해 고교생에게는 100만원 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평균 500만원과 700만원 내외의 연간등록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교생의 경우 우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허청 및 산업기술재단을 중심으로 각종 경시대회 등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자동차, 기계, 반도체, 전자, 철강, 섬유, 조선, 화학, 전력/원자력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주력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졸업 후 해당업계에 취업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발된 학생중 우수학생(약 20명 내외)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외 유명 대학이나 산업기술관련 연구소 등에서의 연수비용 50%까지 지원하는 추가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업종별 장학사업에 대한 업계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산학연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및 업종 단체장과 기업대표가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토록 하는 등 인력양성 선도기업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품대금 현금지급 中企 는다. 2000년 43%서 2002년 60.1%로 증가

중기청, 하도급 기업 거래실태조사결과

납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지난 13일 발표한 '하도급 납품중소기업 거래실태조사결과'에서 2000년 43%에 그치던 현금결제 비중이 2001년 52%로 늘어났으며, 2002년엔 60.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받는 비중은 2000년 55%에서 2001년 46%, 2002년엔 39.9%까지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중기청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17일간 전국 납품중소기업 1000개사를 선정, 설문조사에 응한 233개사의 의견을 정리해 얻은 것이다.

법정기일인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받았다고 답한 업체는 전체의 83.2%였으며, 60일을 초과한다고 말한 기업은 16.8%에 그쳤다.

60일 이내에 어음으로 결제받는다든가 업체는 조사대상 기업의 48.4%였으며, 60일 초과는 51.6%였다. 9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지급받는 경우도 20%로 조사됐다.

하지만 60일 넘게 결제받았으면서도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와 어음할인료도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각각 45%와 47.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응답업체는 납품거래시 △ 수시발주·납기단축(25.4%) △ 주문물량 축소·거래선 변경 가능성(22.8%) △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17.3%) 등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이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조사반을 연중 투입, 질서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납품거래관행에 대한 평가에선 개선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외국인력 활용 소개 책자 발간

중기청, 정부정책 자세히 설명 / 인력난 심각 중기 숨통 트일듯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종합적으로 소개한 책자가 발간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력 도입과 활용제도를 소개한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는 외국의 단순기능요원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및 해외투자기업의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외국의 고급기술인력을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전문인력 도입 중소기업 지원제도', '해외우수 e비즈니스 인력 유치제도', 'IT카드제도', '외국인 과학기술자 유치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각 제도를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운용 목적부터 정부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신청서식, 관련법령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이같은 제도에 의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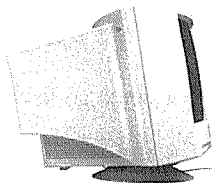
책자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배부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중기청, PL 표준계약모델 개발

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PL) 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모델을 개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PL 표준계약모델은 결합제조물로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영세 납품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L 발생시에도 거래기업이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원만한 거래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모델은 하도급, 판매, 설치(시공), 운송·보관, 수입, 수출 등 6개 분야에 걸쳐 △ PL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계·제조·표시결함을 예방하는 방안 △ PL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 △ PL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방안 등을 계약 조문에 반영,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업종별 PL센터와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경제인연합회 등 업종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해나갈 예정이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